

안동 한국농어촌공사, 청년농 영농 정착 뒷받침

백한철 기자 cowspig@ksmnews.co.kr 입력 | 수정 2026.07.19 19:32

농지은행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
자금 부담 완화 위한 상담 제공



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제공



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제공

[경상매일신문=백한철기자]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, 2030세대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맞춤형 농지지원사업

이번 설명회는 초기자금 부족으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, 농지은행 주요
이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.

이날 설명회에서는 ▲선임대후매도사업 ▲농지매매사업 ▲과원규모화사업 등 청년농이 농지를 마련할 수 있는 농지은행사업을 중심으로 대상과 신청 절차, 지원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.

특히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초기자금 없이 농지를 먼저 임대한 후 장기간 분할 상환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제도로, 자금 부담을 적 영농기반 마련을 도모하는 사업임을 설명했다.

또한 농지매매사업과 과원규모화사업을 통해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소개했다.

안동지사 관계자는 "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농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"며 "이번 설명회가 청년농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,앞으로도 청년농이 농지은행 사업을 적극 활용해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"고